

SUNBO FAMILY

vol.62

SUNBO Ind Co.,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2009. 03. 05

since 1986

FPSO 납품!!

해양플랜트사업의 교두보 확보

FPSO 납품의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월말 부터 시작된 이번 납품은 삼성과 체결된 제품으로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대량 납품이다.

지금까지는 단일제품으로 납품되어진 것에 반해 이번에는 총 48개의 유니트로 나누어져 단계별로 납품된다. 이번 달 2개 유니트 납품을 시작으로 5월초 납품 완료될 예정이다.

FPSO를 제작하면서 우리 회사는 듀플렉스 및 슈퍼듀플렉스 재질에 대한 처리 방법과 WPS 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의 경험과 기술력 향상을 이뤄냈다. 특히 슈퍼듀플렉스라는 특이 재질로 제작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전무한데 이웃소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만큼 까다로운 작업인데다가 경험도 부족하여 시급 수급문제, 설계오작부분 등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도면검토를 통해 세부도면과 전체 도면이 일치할 수 있도록 수정이 이뤄지는데 생산하면서도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나 반복 수정으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거기다 작업 공간의 제약이 있는 만큼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 가능한 유니트 갯수가 제한되어 순환이 힘들다는 점도 있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선보만의 끈기와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하나하나 성공시켜나감으로써 과정과 결과 모두 우리 회사의 큰 경험으로 만들어 내었다. 삼성에서도 협력업체에게 외주를 두는 것은 처음이어서 우리 회사가 설치나 납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아직 납품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출발이 좋은 만큼 마지막 납품까지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길 기원하고 이번 경험이 우리 회사의 미래에 또 하나의 등불로 밝혀줄 수 있길 바란다.



2009년 현미협의회

일시 : 2009년 2월 9일



현대 미포조선 '우수협력사' 로 선정

우리 회사 선보유니텍은 2009년 현미 협의회 신년회에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 상은 우리 회사가 적기 납품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현대 미포조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어 수여받게 되었다.

우수협력사로 지정되면 자주검사 및 무검사 등의 실질적인 혜택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 등 무형의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DSSC 협력사 우리회사 방문



DSSC의 14개사 협력사로 구성된 방문단이 지난 2월 13일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우리 회사와 같은 자재 공급 협력회사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내 신조선 물량 증가에 따른 조달환경과 모,협 관계 증진 등의 이유였으며 인솔자를 포함하여 20여 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 DSSC는 대우조선해양 산동유한공사(DSSC, DSME SHANDONG CO.,LTD.)의 약자로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경제기술개발구 팔각진에 설립된 대형 선박용 블록과 육·해상 플랜트 관련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25일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하구 기업발전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 우리 회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되고 있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할 것이다.

회사 소식

가족초청 간담회

가족화합의 장 '가족초청간담회' 열려...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가족초청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1,23 공장 직원 및 가족 70여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각각 7일, 14일, 28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회사 소개 및 부서원이 일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가족 상호간의 친밀감 증대와 회사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 했던 한 직원은 "평소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많이 미안했는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너무 좋았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썩스럽기도 하였지만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의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함께 자리했던 한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랐다"며 "남편에게 더 잘해주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회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가족화합을 다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 초청 간담회는 3월 말까지 구평공장 및 영도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현장 혁신

자격증 제도 상생의 미학 '현장자격증제도'

우리 회사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현장자격증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현장자격증제도란 현장의 필수 기술을 자격증화 하여 일정시기 내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즉 현장혁신주도를 통하여 현장 감각을 높이고 새로운 프로세서 구축을 통한 회사와 현장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 자리 잡은 구두적 문화는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나 정보 공유 부분에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효율성에서 미흡했다. 또한 분업화 되어있는 현장 체계는 선직업에서의 문제가 후반직업까지 이어져 품질문제로 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실제 현장이나 작업에 있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현장자격증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먼저 자격증제도는 공정한 기준의 잣대가 되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공하게 된다. 목표설정을 하게 되므로써 업무에 대한 빠른 판단력이 생기고 업무 숙련도도 명확해져 작업지시도 수월해 진다.

둘째, 구두적 문화는 자격증제도로 인해 교육 문화로 창출된다. 정확한 교육을 통하여 그동안 선임자에게만 배우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개개인의 기능을 항상 시켜 평생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 숙련도가 명확하여 정확한 작업지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분업화 되어 있는 현장 체계는 직원들의 기술취득으로 인해 일인다가능화 할수 있다. 일인다가능화 하게 되면 작업단계마다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단계를 줄여 품질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직원은 교육과 연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따로 축하금이 지급되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회사도 제품의 질 향상과 고기능자 양성 및 상호 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장과의 트러블도 많이 발생하고 제도를 도입하기 까지 수차례의 걸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사와 현장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현장 자격증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어 직급, 직책별로 취득 자격증 기준이 나누어졌다. 3급부터 진행된 시험은 초기에 합격률이 20%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합격률이 60%를 넘어섰다. 현장 자격증은 용접, 절단, 배관 3가지 과목이 각각 1,2,3급으로 나누어져 총 9단계로 볼 수 있다.

〈표 1〉 불합격시 주어진 기간 내 재시험을 치러야하고 신입사원은 입사 3개월 이내에 3급을 취득해야하며 그렇지 못할시 퇴사 조치된다.

이번 혁신으로 인해 직원과 회사 모두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 회사의 밝은 미래를 전망해 본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편의 책 "내가 다시 너 라면"

살아오면서 겪고 체득한 지혜를 가장 먼저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소망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통 사이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다. 아버지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듯한 아들에게 마땅한 소통 방법을 발견 못해 머뭇거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섬부른 소통 노력을 일부 '잔소리'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가장 솔직한 자기고백을 통해 자식과의 '쿨 한' 대화를 시도한다. 이 책이 직접 대화상대로 삼고 있는 것은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나이가 된 지은이의 두 아들이다. 주인공등록상으로는 어

엿한 성인이지만 50대의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늘 안타까운 철부지일 뿐이다. 아버지가 자식 들으라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잔소리'로 치부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하지만 같은 잔소리라 하더라도 살아온 삶에 대한 뼈저린 성찰을 통해 이토록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는 더 이상 잔소리로 여겨지지 않을 듯싶다.

지은이가 아들에게 퍼부어대는 솔직한 잔소리의 행간에서 우리는 세대의 벽을 허물어 자식과 어떻게든 소통하고 싶어 하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여망을 읽을 수 있다. 이 시대의 아버지를 대표하여 자식세대에 최대한 몸을 낮추어 이야기 하려는 열정에 돋보이는 책이다.



추천 여행지

부산경남경마공원

주말 나들이 장소로 제격, '부산경남경마공원'

매서운 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서서히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겨울 추위에 잠시 미뤄두었던 가족나들이로 적합한 장소가 부산 근교에 자리 잡고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과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에 절반씩 걸쳐 있는 부산경남경마원은 가족 나들이에 환상적인 장소이다.



부산경남 유일의 가족형 말 테마파크인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 2007년 개장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어 부산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서울과천경마공원보다 3만평이나 더 넓고 무려 축구장 100개를 합쳐놓은 것과 같다니 크기부터 시선을 압도한다. 넓은 부지 안에는 다양한 광장과 공원이 자리하고 차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피해 없이 가족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부산경마공원에 가는 이유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은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것. 유아용 자전거 광장, 복합 어린이 공원, 슬라이드 힐, 키즈랜드에 어린이 승마장까지,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다양하다. 복합 어린이 공원 내에는 어린이 전용 축구장에서 플레이네트, 흔들 놀이에 인공암벽까지 다양한 놀이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사계절 내내 썰매를 탈 수 있는 슬라이드 힐은 주변의 인공폭포와 조화를 이뤄 멋진 풍경까지 연출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푸르른 공원 속 새로운 놀이 공간을 만나게 된 것이다. 탁 트인 녹지를 배경으로 자리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자전거광장, 호수공원 등은 가족뿐만이 아닌 연인의 데이트 장소로도 제격이다. 최근에는 경마공원 내 경관 중 투표와 심사를 통해 '부산경남경마공원 볼거리 8경'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나들이를 즐기면서 8경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다.

먼저 제 1경으로는 국내 최대 비대칭 조형물인 경마공원 정문 조형물 '조우'가 선정됐다. 야간 점등 광경이 압권인 조우는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원들의 출사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제2경은 경마공원 경주로 내부 유수지인 '호수공원'으로 방문객들의 친환경 생태 휴식공간이자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다. 제3경으로는 어린이 고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는 '슬라이드 힐'이, 제4경은 경마공원의 백미 '야간경마'. 제5경은 경마공원의 상징물 '청동마상', 경주로 내부에 위치한 '선심류정'은 6경에 선정됐다. '착한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의 선심류정은 주변의 인공연못 및 산책로와 어우러져 차분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미니말, 조랑말과 함께하는 '말사랑체험장'은 7경에 선정됐다. 말사랑 체험장은 직접 말을 타고, 예쁜 미니말과 함께 사진촬영도 가능하며, 당근과 같은 먹이를 줄 수 있어 어린이들의 동물사랑 교육장소로까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제8경에는 경주마들의 질주봉을 자극하는 드넓은 경주트랙, '경주로 전경'이 선정됐다. 특히 경마공원의 무료 견학프로그램 코스 중의 하나인 경마 방송실 테라스에서 바라본 경주로 전경이 일품이다.

거기다 이 모든 시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유모차와 돗자리, 아이들에게 자전거 대여도 무료로 대여가능하다고 하니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승마장, 말사랑 체험장에서는 디지털 사진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혹시나 카메라를 잊었다면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번 주말에는 일상의 모든 업무와 고민 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부산경남 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봄기운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수필수상

수필 "작은 베품, 큰 기쁨"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간다. 처음 봉사활동 부서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그냥 친구가 하자고 해서 들어간 것 뿐이었다. '대중대중 봉사활동을 하면 되겠지'라는 내 마음이 정말 부끄러워졌을 때는 처음 현장에서 도시락 배달을 했을 때였다. 토요일에 모여서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갔는데 도시락 배달을 할 집이 꽤나 많았다. 도시락 배달을 해야 할 동, 호수가 적힌 종이를 보고 내가 배달해야 할 첫 번째 집으로 가는데 도시락이 많아서 힘들었다.

첫 번째 집에 도착하니 한 할머니께서 문 앞에서 서성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보자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문 앞까지 걸어 나와 우리에게 고생이 많다고 하시며 우리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셨다. 그 모습을 보고 '대중'이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내가 정말 부끄러워졌다.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니까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시면서 안에서 뭐라도 먹고 가라고 하셨지만 다른 집에 배달할 것이 많아서 정중히 거절했다.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던 할머니가 배달을 마칠 때까지 자꾸 머리에 떠올랐던 기억이 난다. 그 때부터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거친 웃음, 거친 마음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도시락 배달과 함께 말벗해드리기를 하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인 내가 처음 만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말벗을 해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재차 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을 다시 확인하고 말벗을 해드릴 집으로 갔는데 처음 말벗 상대가 되어드릴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2명이 짝이 되어 말벗 서비스를 나갔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정말 반가우셨던 것 같다. 나는 긴장을 해서 복지사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몇 가지 질문조차 잊어버리고 인사만 하고 멀뚱히 앉아있었는데 함께 간 친구가 먼저 능숙하게 할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물어보았다. 처음에 나는 그냥 맞장구만 치며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다.

잠시 어색해진 분위기에 밀려 나는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어쩌다 보니 나오게 된

- 장주영 -

'활' 이야기 할아버지께서는 활기를 띠고 우리에게 왕년에 활을 잘 쓰셔서 상까지 받으셨다며 자랑스럽게 시오가 화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나까지 즐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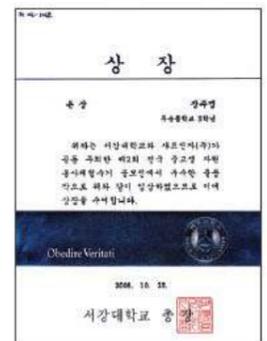
그렇게 친구와 할아버지와 웃고 이야기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다음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서둘러 나왔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과는 달리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내가 도시락을 가져다드리고 말친구가 되어드리면 많은 격려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며 내가 그분들께 작은 행복을 나누어준 것 같아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기쁨을 느낀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맙다고, 힘들지는 않냐고 물어보는 어르신들이 걱정 어린 말을 들을 때면 오히려 고마워지고, 힘들지만 더욱 힘내서 봉사활동을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1년하고 몇 개월 정도 밖에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나의 내성적인 성격도 많이 고쳐지고 어르신들을 대할 때면 어떻게 대할지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어 다음 해에도 자원봉사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과 소외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다. 조금 힘들더라도 나로 인해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떠오르는 해를 보며 다진다.



우리 회사 설계부 장호길 차장의 자녀 장주영양이 금번 서강대학교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수필 내용을 사보에 실습니다.

생생현장의 소리

한태영 대리 대리 그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느 이야기에서든 영웅 혹은 정의로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전의 악역은 주인공을 괴롭히기만 하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그 악역의 범위와 이유 모두 다양하다.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역을 맡는 사람이 있다.

선보에서도 바로 본심과는 상관없이 '악역'을 맡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경영지원부 재무인사팀의 한태영 대리다. 장황하게 악역을 맡고 있다고 소개하긴 했으나, 그는 지난해 모범사원상을 수상하기도 한 알아주는 일꾼 중 한 사람이다.

"모범 사원상은 나보다 일을 열심히 했다거나 더 잘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받게 돼서 얼떨떨하다. 동시에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앞선다. 어떤 이유에서 받았던 상을 받았으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칭찬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그는 이전의 관리팀부터 지금의 경영지원부 재무인사팀까지 모두 사람과 돈을 직접 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충도 많았다고 전한다.

"아무래도 돈을 만지는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늘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해야 했다. 다른 직원들의 경비 등을 정산해줄 때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을 때가 가장 난처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했을 때가 조금은 답답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도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다른 부서들은 모두 오픈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부서만 문이 있어서 다른 부서와 단절되어 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들 모두 일하다보니, 우리 부서에는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부서 사람들도 굳이 나가려 하지도 않는다.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오픈 된 환경에서 다른 부서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시간과 일에 쫓겨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마주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조금의 여유를 갖고 싶다. 그리고 지난 한 해 과분한 상을 받은 만큼 올해는 지난 한 해보다 배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누군가에게는 늘 악역을 도맡아왔던 그의 모습이 그 어떤 이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해보였을 것이다. 원하지 않는 조건에서 일하는 그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인상 찌푸리지 않고, 밝게 일할 수 있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시간에는 조금은 서먹했던 부서들 간의 대화를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4호 주인공 | 표종원 팀장



Q 칭찬 릴레이 34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을 주위 사람들은 물론 저도 몰랐어요. 인터뷰 직전에 듣게 돼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우선 칭찬받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선보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소속감

또한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진정한 '선보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아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우선 영도의 오픈 멤버라고 해야 하나, 영도 공장이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늘 자부심을 갖고 일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근무와는 거리가 멀었던 작업여건이 열악했던 초기부터 일해 왔어요. 그렇다 보니 정말로 내 일이구나 하는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동시에 가지고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는, 현재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

계속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근무 과정을 정착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또 의장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재를 준비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특히 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시해요. 기간에 맞춰서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나면 그때서야 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을 할 때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는데 자재와 생산을 총괄하다보니 다른 직원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조금 힘에 부치는 느낌이 있어요. 다들 최고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가끔 충돌이 생기기도 하는 데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Q 35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한다면?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분들이 유독 많이 떠오르네요. 그 중에서도 굳이 한 분을 꼽자면 정진엔텍 김도수 직장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하지만 이 분은 특히 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 같아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마주하려고 하고 더불어 전문적인 마인드 또한 갖추고 있는 분이예요. 체계적으로 조직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능통해요. 깔끔한 일처리로 회사가 발전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는 김도수 직장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칭찬릴레이 운영 방안

우리 회사는 보다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칭찬 릴레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을 맞이하여 칭찬 릴레이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칭찬 받으신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칭찬 수상식을 진행합니다. 또한 칭찬 릴레이는 각 공장별 로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합니다.



- 아래
1. 상 품 : 칭찬 배지 및 호텔 숙박권 2매(부페 식사권 2매, 2인 숙박권, 사우나권 2인 포함)
 2. 전달 일시 : 각 공장별 매달 둘째 주 안전교육 시간
 3. 전달 방법 : 임원 혹은 공장장이 직접 전달
- ★ 상품권 및 배지 문의는 총무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본사	경영기획 김청옥(3/7)	실계3팀 김경수(2005/3/2)
경영지원 서재욱(3/20)	김동길(2008/3/6)	윤은석(2008/3/6)
기술영업 박종혁(3/3)	실계4팀 김규영(2008/3/6)	
품질경영 권희정(3/28)	윤우희(3/24)	
분사실계 박문영(3/16)		
1공장		
출하관리 김진삼(3/1)	판매혁(2008/3/6)	
배관반 박순민(3/1)	생산관리 권남현(2008/3/6)	
배관팀 손인철(3/4)	정재현(2008/3/3)	
전조반 최근들(3/24)	고객지원 한진우(2005/3/2)	
순해공입 정귀필(3/19)	정성우(3/23)	1공장 조수희(2006/3/9)
김영동(3/15)	지용천(3/27)	2공장 김경국(2008/3/3)
보은반		김영자(2006/3/13)
2공장		이기록(2008/3/26)
사외물류 배승룡(3/8)		이재현(2006/3/9)
정수ENG 이정민(3/1)		박희순(2006/3/1)
3공장 김승우(3/24)		생산관리 신상인(2008/3/7)
윤기현(3/28)		3공장 엄익상(1996/3/18)
		임종화(2001/3/26)
구평		
실계6팀 오창배(3/10)		
윤태홍(3/1)		
대현ENG 차정문(3/6)		
박종규(3/10)		
김수은(3/10)		
명성산업		
정진권(3/20)		
박래문(3/21)		
형남천(3/5)		
박재홍(3/8)		
허종식(3/17)		
박현수(3/10)		
박종금(3/20)		
서평PLANT 이상진(3/2)		
이홍조(3/12)		
하림TECH 박운숙(3/7)		
노애자(3/5)		
목포		
공정장 박원석(3/5)		
관리부 이종훈(3/16)		
생산부 박상부(3/5)		
영도		
입사기념일		
입원 정호경(1990/3/1)	신각생산관리 박현일(2008/3/6)	
자재조달 황지석(2008/3/3)	외장생산관리 김탁현(2007/3/1)	
경영기획 김청옥(2002/3/20)	자재운영 김수환(2008/3/3)	
기술영업 이주일(2007/3/1)	조연주(2008/3/7)	
실계팀 민병기(2008/3/3)	목포	
박이록(2008/3/6)	생산관리 박상래(2008/3/2)	
실계2팀 이재람(2008/3/6)	실계부 오세준(2004/3/3)	